

# “꽁 소리와 함께 친구 날아가는 것 보고 정신 잃었다”

### ■여수폭발 현장 근로자 문진복씨가 말하는 사고 순간

“군 북부중인 아들 면회 갔다는 뒤 열심히 돈 벌겠다고 종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퇴근마다 차를 태워 주던 재득이, 밤새 소주마시면서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던 게 엇그제 데...”

지난 14일 발생한 여수산단 대립산업 폭발사고의 상황을 전하던 현장 근로자 문진복(55)씨는 친구를 한꺼번에 2명이나 잃은 슬픔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사고 직후 화상 치료를 위해 긴급히 광주시 북구 운암동 굿모닝 병원으로 이송된 그의 얼굴은 눈과 입을 제외하고 온통 붓대투성이었다. 눈은 사고 당시의 상처에다 친구들을 잃은 슬픔에 눈물이 범벅돼 퐁퐁 부어 있었다.

병원 측은 “문씨가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2도 화상에다 갈비뼈가 골절되는 증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문씨는 사고 당일 30년 지기인 김종태(사망·53씨), 서재득(사망·54)씨와 함께 대립산업을 찾았다. 이들은 서로 일감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해주고, 매번 서씨의 차로 출퇴근을 함께 할 만큼 각별한 사이였다. 문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안전관리와 발관을 설치했고 오후 6시부터 야간작업에 들어가 사일로 위에 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문씨는 “소속 회사 근로자 9명과 지상 30미터 높이의 사일로 상판에 올라가 사일로 연결 통로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엄청난 폭발 소리가 들리더니 화염이 뿜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씨는 “사일로 상판의 공간이 좁아 작업자들이 1미터 간격으로 촘촘하게 서 있었다”면서 “폭발한 뒤 가까운 데 있던 친구가 날아가는 것을 본 뒤 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끔찍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문씨는 20분 가량 지난 후 정신이 들었을 때 난간에 몸이 걸려져 있었고 세찬 바람 사이로 굉음이 울리고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고 전했다.

사일로 상판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나뒹굴었고 허벅지에 피를 흘린 채 동료 2명이 쓰러져 있는 것도 보여 “여기요. 사립았어요. 일어나. 정신 차려”라고 외쳤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에는 차라리 눈을 감고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했다”며 몸을 떨었다. 그는 망가진 몸을 일으키고 필사적으로 옷을 흔들었고 사고 발생 40여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문씨는 “친구들과 일 끝나면 소주 마시러 가자고 했는데...”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17일 여수시 신월동 여수장례식장에 마련된 대립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직장 동료들이 분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진보단체 도심 집회 불허 왜?

### 경찰, '키 리졸브' 반대 우려 원천 봉쇄한 듯

광주동부경찰이 진보단체의 시위를 원천 차단했다. 경찰이 통상적으로 허가해왔던 방침을 돌연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 광주우체국 앞길에서 진정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애초 요청했던 집회 장소를 바꿔 진행한 것으로 그동안 이들은 체는 알리던 서점(옛 삼복서점) 단길에서 집회 또는 문화제를 열었다.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50m 떨어진 광주우체국 집회를 가졌다는 게 시민단체측 설명이다.

경찰은 “야간 집회인데다, 교통 혼잡 및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집회 불허방침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주최 측은 “지금까지 쪽 허락해온 집회 장소를 굳이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새 정부의 눈치 보기 아니냐”며 골치 아픈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한미연합군 사출 선언인 키 리졸브(Key Resolve)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비공개적으로 반미 집회 자체 지시를 내렸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희생자 장례절차·보상 협상

### 유가족-대립산업측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립산업(주)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3일 만에 희생자들의 장례절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애초 유가족과 노조 측은 “본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등 대립산업 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보상문제 등에 관한 대립산업 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장례 절차 논의를 유보해왔다.

17일 대립산업 측과 장례절차 논의를 중재하고 있는 여수산단 플랜트노조 측에 따르면 유가족과 사측은 전날부터 장례 절차 및 보상 문제 등의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측과 협상절차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면서도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립산업 측은 대표이사가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가족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유가족과 협상이 마무리되면 장례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장례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합동분향소 주변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대립산업 박찬조 대표이사와 임직원 30여 명이 합동분향소를 찾았으며 “사측이 사고원인을 은폐하고 있다”는 일부 유가족의 항의에 서둘러 분향소를 빠져나갔고 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경찰은 “야간 집회인데다, 교통 혼잡 및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집회 불허방침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주최 측은 “지금까지 쪽 허락해온 집회 장소를 굳이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새 정부의 눈치 보기 아니냐”며 골치 아픈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한미연합군 사출 선언인 키 리졸브(Key Resolve)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비공개적으로 반미 집회 자체 지시를 내렸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 주한미군, 이번엔 흥대앞서 잇단 경찰 폭행 이달 들어 5건 발생

주말 밤 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한 미군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15분경 마포구 서교동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서 동두천에 근무하는 주한 미군 E(19) 일병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모(28)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류모(41) 경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경찰은 E일병과 1병장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날 오전 미군 대표부 입회하에 조사를 한 뒤 오후 2시30분해 돌려보냈다. 전날인 16일에는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내에서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려는 클럽 주인과 미군들이 새벽 난투극을 벌였다. 지난 14일에는 광역시의 한 아과

트에서 미군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한국 여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영상을 보여주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불합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주한미군 3명이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고 경찰관까지 차로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 니원침 (8775) 김종두



## 오문철 보해저축銀 前대표 100억대 횡령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은식 부장검사)는 1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오문철(60·수감중)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09년 D업체를 인수해 이 회사의 주주장 부지를 A사 아파트에서 아내(46)의 얼굴 등을 찍어 찍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이 중 110억원 상당을 보해저축은행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만기 출소 40대 '주폭' 또 난동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죄로 복역 후 출소한 40대 '주폭이' 군청 사무실 등에서 또다시 난동을 부리다 처형장행.

○17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에 곡성군청 복지사업과·민원실에서 여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최근까지 군청과 곡성경찰서 등 4곳에서 39회에 걸쳐 음주 소란을 피웠다는 것.

○이씨는 지난 2010년에 만취 상태에서 곡성경찰서 소속 여경에게 폭언·모욕한 죄로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는데,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횡간에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2타경 2419	1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289-3 910㎡ [임성촌 지분3분의1전부] 토소 289-4 705㎡ [목욕1과지분내용동일] 토소 289-5 815㎡ [목욕1과지분내용동일]	담	6,479,200 6,479,2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2타경 2471	1	장흥군 유지면 반월리 301 436㎡ [현상:묘지묘이용종][연고미상의분묘소재]	대	3,346,800	지목대이나현황요지목이용종
2012타경 2518	2	장흥군 장평면 낙양리 155 1372㎡	대	4,319,300	지목대이나현황요지목이용종
2012타경 2532	1	장흥군 장평면 선전리 238-10 625㎡	담	53,728,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556	1	장흥군 회진면 직목리 산154 16760㎡	임야	7,54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758	4	강진군 직천면 내거리 400-1 1027㎡ 토소 400-2 1437㎡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토소 400-1 396㎡ [제시외 우사 242㎡]	목장용지 담 무사	70,796,800 70,796,8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2타경2358[병합]
2012타경 1034	1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1002-1 5842㎡ 토소 1002-1 공장 1050㎡ 사무실 250㎡ 창고 1048.7㎡ 부속건물 창고 164.65㎡ 164.65㎡ 제시외 공중 등 534.5㎡ 기구뒤편인 불합형외40점 [그중2점은 소재불명][제시외 건물포함]	목장용지 공중등	1,606,563,460 1,606,563,460	일괄매각, 기계기구포함, 기계기구포함, 가명세류포함, 공경양광발전장치장비 6호에 대한 기계, 기구목록별지 기재필요
2012타경 1591	2	장흥군 회진면 선전리 141 2562㎡	목장용지 기타	163,396,800 163,396,8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기계, 기구포함 [감정평가서 기재기수기호 1-12, 14-16, 20-37, 3목목종2], 17목목종
2012타경 1690	1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916-1 23㎡ [목욕1내지5는일일지도시계획시설[소로3류]지축] 토소 916-3 3㎡ 토소 917-5 4926㎡ 토소 918-2 20㎡ 토소 919-4 69㎡	대 대 대 대 대	541,051,100 541,051,1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기계, 기구포함 [감정평가서 기재기수기호 1-12, 14-16, 20-37, 3목목종2], 17목목종

2013. 3.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김정필**